

20, 30대 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

차 경 욱(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조교수)

박 미 연 · 김 연 주(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석사과정)

I. 서 론

최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은퇴 및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30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 두면 거의 15%에 달하는 이자를 얻을 수 있었고, 자녀들의 보조를 조금 받으면 노후 생활에 별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얘기가 다르다. 고용도 불안할 뿐더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으며, 금리는 물가상승률을 상쇄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게다가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느라, 은퇴 후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은 은퇴재무설계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충분하다.

최근 만 35~49세 남녀 1,001명(은퇴잠재자)과 퇴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잠재자의 59%는 ‘은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47.8%가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61.9%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생활비’(20.9%) ‘주택마련 비용’(15.1%)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은퇴시기를 평균 62~63세로 인식하고 있었고, 평균 36~37세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조사대상자의 70%는 은퇴 후 평균 생활비로 월 100~200만원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은퇴를 앞둔 49세 미만의 은퇴 잠재자들은 현재 가구 소득의 57%가량이면 은퇴생활비로 적절하다고 예상한 반면, 퇴직자들은 은퇴 전 가구 소득의 65%는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경향신문 2007년 7월 3일자).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은퇴재무설계는 생애주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 재무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은퇴라는 사건이 자녀양육 및 교육, 내 집 마련 등과 같은 여타 과업들 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출현하기 때문이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평균 36~37세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할 경우,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통상 20년 남짓이다. 그러나 은퇴 후 살아가야 할 기간은 20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36~37세 부터는 자녀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은퇴자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각 개인과 가계가 부담은 줄이면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설계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직장인이 60세에 은퇴할 때 까지 3억 원의 목돈을 모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연이자율이 8%인 적립식 상품에 매달 저축을 한다고 가정할 때, 20세부터 시작한다면 매달 8만 6천 원씩 저축하면 되고, 30세부터 시작하면 매달 20만 1천원을 넣어야 한다. 또한 40세에 시작한다면 매달 50만 9천원을 넣어야 하고, 50세에 시작하면 매달 무려 164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매달 저축해야 하는 금액은 점점 더 큰 폭을 상승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세에 저축을 시작해서 매달 8만 6천 원씩 20년 동안 저축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적립을 못하더라도, 그 돈을 이후 20년 동안 인출하지 않고 그냥 두면, 은퇴 시점에 2억 3천 6백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다시 한 번 은퇴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실을 강조해 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경제적 삶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김연정, 1998; 안중범·전승훈, 2003; 이희숙·신상미, 2003; 신현구, 2007; 은퇴를 앞둔 중년기 가계를 대상으로 은퇴설계에 대한 분석(곽인숙·홍성희·이경희, 2007; 홍성희·곽인숙, 2006, 2007)을 주로 해왔으며, 간혹 20대부터 50대까지의 직장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배문조, 2007, 최성재, 1992)도 있다. 그러나 20~30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은퇴설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는 여태까지 20~30대에게는 은퇴재무설계가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20~30대 사이에서도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0대 근로자들의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를 분석하고, 실제로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 은퇴관련 특성을 비교하며, 나아가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재무설계 방법 및 규모 등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20~30대 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은퇴재무설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조기시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은퇴재무설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근로자들의 바람직한 은퇴설계를 조력해야 하는 고용주와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은퇴설계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은퇴 후 노후생활의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적, 비재정적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장기적인 재무설계 과정이다.

은퇴에 대한 대비 경제적, 심리적 대비 없이 퇴직을 하게 된 사람들의 노후는 경제수준의 저하와 가정 내의 지위 하락, 사회활동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은퇴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배계희, 1998). 본질적으로 은퇴설계는 재정적 부분 뿐 아니라, 여가생활, 가족생활, 신체적·심리적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관리를 포함하는 것이다(지영숙·최보아, 2002; 홍성희·김순미·김혜연, 2006). 그러나 소득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하며, 노인

스스로도 경제문제를 가장 일차적인 어려움으로 인지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다.

은퇴설계를 시작하는 시기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성숙·박운아(1992)의 연구에서는 40대(43.8%)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전문 관리직인 가계가 사무직인 가계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 따른 연구에 따르면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를 평균 36~37세로 나타냈다(하나은행, 2007).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년기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객인숙 외(2007)의 연구에서는 은퇴 후 예상소득으로 월 평균 243만원 정도가 산정되었고, 35~49세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은행(2007)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70%가 100~200만원이 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주소현(2007)의 연구에서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로 월평균 150~200만원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성숙·박운아(1992)의 연구에서는 은퇴 후 원하는 경제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생활, 건강, 여행 및 취미 영역보다는 주거와 식생활비 영역에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40대 이상의 중년기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이지은(1999)은 40대 보다 50대에서 노후 경제생활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많았다고 보고하였고,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을 비교한 홍성희(2006)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경제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이상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 배문조(2007)는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후 재정준비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 반면, 최성재(1992)의 연구에서는 30대, 20대, 40대, 50대 순으로 노후경제계획을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은퇴재무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임장순(1990)과 김인숙(1993)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를 대비하여 경제적 계획 및 생활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Barfield & Morgan (1978)는 교육수준에 따른 은퇴 후 계획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에 따른 은퇴재무설계 수준을 살펴보면, 김성숙·박운아(1992)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인 가계가 사무직인 가계에 비하여 경제적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형태는 공적연금 및 기업연금 혜택이나 직업의 안정성 측면, 근로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은퇴재무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신하연(1997)의 연구에 의하면, 공적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 종사자가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가계소득이 경제적 노후대비수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지은(1999)과 배문조·전귀연(2004)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홍성희(2007)의 연구에서도 자산과 소득이 많은 집단이 노후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숙재·김순미(1997)는 맞벌이 여부는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개인 및 가계의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 조건 뿐 아니라, 현재 및 미래의 가계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미래의 경제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평가와 은퇴 후 가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은퇴재무설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다(이지은, 1999; 홍성희·곽인숙, 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홍성희·곽인숙(2007)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태도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은퇴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은퇴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계획의 수준이 높으며, 현재의 경제적 능력과 은퇴 후 생활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은퇴태도를 매개로 하여 은퇴계획에 미치는 간접적인 정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곽인숙 외(2007)의 연구에서는 은퇴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 후 소득확보, 생활비 지출, 자산보유와 증식, 부채감소, 상속 및 병원비 등 모든 영역의 경제적 계획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근로자들의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를 분석하고, 은퇴재무설계 수행 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은퇴관련 특성을 비교하며, 근로자들의 은퇴재무설계 방법 및 규모 등을 파악함으로써, 20~30대 근로자들의 은퇴재무설계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은퇴설계를 돕기 위해 고용주와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30대 근로자의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따라 20~30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은퇴관련 기대와 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재무설계 방법과 실태는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유의할당 표집을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표집되었으나, 기혼인 경우 부부 중 일인만 응답하고 필요에 따라 배우자 정보도 함께 기입하도록 고안하였다.

2007년 6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360부를 배포하였으나 미회수, 부실 기재되거나 분석에 용이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22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특히 표집 결과 자영업주의 비율이 5%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난 관계로, 자영업주의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인 20~30대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 은퇴재무설계 여부, 은퇴재무설계 방법, 금액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은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예상 은퇴연령,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정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은퇴설계 시작시기, 현재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 은퇴 후 예상되는 가계 경제수준,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수준, 은퇴 후 예상 수입원과 주요 지출비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은퇴 후 예상되는 가계 경제수준은 1~9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기대하는 경제수준이 높은 것이다. 은퇴 후 예상 생활비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현재 생활비의 몇 %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질문했다.

은퇴에 대한 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 1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김영대(2004), 지연경·조병은(1991), 배문조·전귀연(2004), 최성재(1989), Staples(1998)의 척도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은퇴태도의 유목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차원이 유의하게 구분되지 않아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를 조사한 Cronbach's α 의 값은 .83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현재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은퇴재무설계 방법 및 지출 금액, 그리고 방법 및 금액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고,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근무기간, 결혼 여부, 가구유형 및 맞벌이 여부, 월평균가계소득, 주거형태 및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등을 조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인 20~30대 남녀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의 분포는 남성 51%, 여성 49%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였으며, 20대가 57%, 30대가 4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4%에 불과하고, 2년제 및 4년제 대학 졸업자가 82.5%, 대학원졸 이상이 13.5%로서, 본 연구대상의 교육수준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은 생산·판매직이 13.7%, 사무직이 38%, 전문 관리·기술직이 48.3%로 나타났는데, 생산·판매직에 비해 사무직과 전문 관리·기술직의 비율이 높은 것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 취업 이후 총 근무기간은 평균 4.9년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65.7%가 미혼이었고, 34.3%가 기혼이었는데, 미혼자 중 절반 정도는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가구 중 3분의 2가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가계소득은 평균 338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통계청(2007)이 발표한 2007년 2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346만 8천원)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의 가계소득의 경우, 부모의 소득이 합산되었을 것이라는 제한점을 갖는다. 이를 고려할 때, 조사대상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은 좀 더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형태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는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한 결과, 자가를 소유한 비율이 26%이고, 전세, 월세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74%로 나타났다. 현재 본인이 처한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을 1~9점까지로 기입하도록 한 결과는 평균 4.74점으로 중간 값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¹⁾

(n=227)

변 수	구 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성 별	남 성	116 (51.1)
	여 성	111 (48.9)
연 령	20대	127 (56.4)
	30대	98 (43.6)
	평균(세)	29.85 (4.80)
교육수준	고 졸	9 (4.0)
	대졸(2년제 포함)	184 (82.5)
	대학원졸 이상	30 (13.5)
직 업	생산·판매직	31 (13.7)
	사무직	78 (38.0)
	전문 관리·기술직	99 (48.3)
	근무기간 (년)	4.9 (3.7)
가구유형	미혼단독가구	76 (33.5)
	미혼부모동거가구	73 (32.2)
	기혼가구	78 (34.3)
맞벌이 여부 ²⁾	맞벌이	52 (66.7)
	홀벌이	26 (33.3)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	65 (28.6)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71 (31.3)
	400만원 초과	54 (23.8)
	평균(만 원)	337.69 (196.7)
주거형태	자 가	58 (25.6)
	비자가	169 (74.4)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1~9점)	4.74 (1.50)

¹⁾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²⁾ 맞벌이 여부는 기혼가구(n=78)에 한하여 조사함.

2.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

조사대상인 20~30대 남녀 근로자들이 은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이 예상하는 은퇴 연령은 56세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59.6세로 조사됨으로서, 예상 은퇴연령과는 약 4세 가까지의 편차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보면, 예상 은퇴연령은 직업군에 따라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로 은퇴 예상 연령이 56-60세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홍성희, 2007; 주소현, 2007). 본 연구에서 약 50%의 근로자들은 그들이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은퇴 연령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서, 보다 더 오랜 기간 일을 하기를 원했고, 약 12%는 반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이 예상 은퇴연령 보다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52%는 30대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3%는 30세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조사대상인 20~30대 남녀 근로자의 85%가 40대가 되기 전에 은퇴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은퇴설계 조기 시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실제로 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조사대상의 50%는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50%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재정적 특성, 은퇴에 대한 기대 및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기대와 예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은퇴 후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기대,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은퇴 후 예상수입원 및 주요 지출비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은퇴 후 예상되는 경제수준을 1~9점까지로 평가한 결과 평균 5.5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경제수준을 평균 4.74점으로 평가한 것 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현재의 경제수준과 비교할 때, 은퇴 후 경제수준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 현재와 같은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 그리고 현재 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로 조사되었다. 또한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현재 생활비의 몇 %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89%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40%가 현재 생활비의 75~100%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답하였고, 17%는 현재의 생활비 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개인과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은퇴 전 생활비의 70% 정도로 잡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 이는 젊은 층이 은퇴 후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30대 현재 소득과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중년기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비율이 줄어들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54%가 은퇴 후 수입원으로서 개인 저축, 보험과 연금이 가장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32%는 부동산 등 재산소득과 제 2의 직업을 통한 근로, 사업소득이라고 답하였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은퇴 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출비목은 보건·의료비였고(46.7%), 문화·교양·오락비(27.6%)가 뒤를 이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식비, 주거비와 같은 기초생활비 보다는 은퇴 후 건강 유지 및 여가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은퇴 후 생활에서 의생활, 건강,

여행 및 취미 영역보다는 주거와 식생활 영역에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김성숙·박운아(1992)의 연구결과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15년의 시간 동안 소비생활의 패턴 및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 등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사료된다.

<표 2>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¹⁾

(n=227)

변 수	구 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예상 은퇴 연령 (세)	55.96(8.3)
	바람직한 정년 (세)	59.64(6.4)
바람직한 정년과 예상 은퇴 연령 차이	바람직한 정년 > 예상은퇴연령	113(49.8)
	바람직한 정년 = 예상은퇴연령	86(37.9)
	바람직한 정년 < 예상은퇴연령	28(12.3)
	평 균	3.68(7.6)
바람직한 은퇴설계 시작시기	30세 이전	74(32.6)
	30대	119(52.4)
	40대 이후	34(15.0)
현재 은퇴설계 수행 여부	한다.	114(50.2)
	하지 않는다.	113(49.8)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1~9점)		5.59(1.60)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과 현재 경제수준 차이	은퇴 후 > 현재	113(50.7)
	은퇴 후 = 현재	50(22.4)
	은퇴 후 < 현재	60(26.9)
	평 균	0.85(1.99)
현 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 생활비(%)	50% 이하	43(19.1)
	50%초과 75%이하	54(24.0)
	75초과 100%이하	89(39.6)
	100% 초과	39(17.3)
	평 균	89.22(52.0)
은퇴 후 주요 예상수입원	개인저축, 개인연금	123(54.2)
	직장 퇴직금, 퇴직연금	25(11.0)
	국민연금, 사회보조금	6(2.6)
	재산소득, 기타소득	73(32.2)
은퇴 후 주요 예상 지출비목	식비·주거비	55(24.7)
	보건·의료비	106(46.7)
	문화·교양·오락비	63(27.6)
은퇴태도 ²⁾	긍정적(38점 이상)	74(32.9)
	보 통(33~37점)	82(36.4)
	부정적(32점 이하)	69(30.7)
	평 균 ³⁾	3.18(0.50)

1)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2) 은퇴태도는 [M±SD/2]를 기준으로 긍정적, 보통, 부정적 태도의 세 집단으로 분류함.

3) 5점 환산평균 점수임.

5점 리커트 척도 11문항으로 측정된 은퇴에 대한 태도는 5점 환산 점수로 계산했을 때, 평균 3.18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집단(M+SD/2 초과), 보통 집단(M+SD/2~M-SD/2), 부정적인 집단(M-SD/2 미만)을 분류한 결과, 보통 집단에 속하는 조사대상자 비율이 다소 높았다.

3.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인 20~30대 근로자 중에서 50%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실제로 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50%는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사회·경제적 특성,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사회·경제적 특성은 연령, 직업, 근무기간, 가구유형,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월평균 가계소득 및 주거형태였다.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근로자 집단의 평균 연령(31.3세)이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고 있는 집단의 평균 연령(28.4세)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20대 보다는 30대의 근로자들이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재정적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대개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업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이다 보니, 은퇴설계 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해 온 기간이 평균 6.4년인 것에 반해,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근무기간은 3.37년인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생산·판매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는데 반해, 전문 관리·기술직에 종사자들은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 관리직인 가계가 사무직인 가계에 비하여 경제적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한다고 밝힌 김성숙·박운아(199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은퇴재무설계 여부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가구유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미혼인 근로자들은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모두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반면, 기혼 근로자들은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집단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380.6만원으로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298.8만원)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높았다.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집단의 경우, 현재 본인이 처한 경제수준에 주관적 인지 역시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이나 자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단은 은퇴재무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계소득, 자산 등이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이지은, 1999; 배문조·전귀연, 2004; 홍성희, 2007)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표 3>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따른 집단간 비교 - 사회경제적 특성

(n=227)

변 수	구 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t/χ ²
		은퇴재무설계 수행 (n=114)	은퇴재무설계 미수행 (n=113)	
성 별	남 자	61(52.6)	55(47.4)	.53
	여 자	53(47.7)	58(52.3)	
연 령	20대	48(37.8)	79(62.2)	18.01***
	30대	65(66.3)	33(33.7)	
	평균(세)	31.31(4.3)	28.38(4.9)	
교육수준	고 졸	6(66.7)	3(33.3)	2.36
	대졸(2년제 포함)	89(48.4)	95(51.6)	
	대학원졸 이상	18(60.0)	12(40.0)	
직 업	생산·판매직	10(32.3)	21(67.7)	16.82***
	사무직	31(39.7)	47(60.3)	
	전문 관리·기술직	65(65.7)	34(34.3)	
	근무기간 (년)	6.41(3.9)	3.37(2.7)	-6.65***
가구유형	미혼단독가구	33(43.4)	43(56.6)	9.17**
	미혼부모동거가구	31(42.5)	42(57.5)	
	기혼가구	50(64.1)	28(35.9)	
맞벌이 여부 ¹⁾	맞벌이	36(69.2)	16(30.8)	2.75
	홀벌이	13(50.0)	13(50.0)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	32(49.2)	33(50.8)	4.72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35(49.3)	36(50.7)	
	400만원 초과	36(66.7)	18(33.3)	
	평균(만 원)	370.56(204.9)	298.77(180.1)	
주거형태	자 가	58(58.0)	42(42.0)	4.32*
	비자가	56(44.1)	71(55.9)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1~9점)	5.0(1.3)	4.49(1.7)	-2.58*

¹⁾ 맞벌이 여부는 기혼가구(n=78)에 한하여 조사함.

2)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 비교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은퇴 후 예상 경제수준과 현재 경제수준의 차이, 은퇴 후 예상 수입원,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수준, 은퇴 후 예상 지출비목, 은퇴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예상 은퇴연령, 바람직한 정년 등 은퇴시기와 관련된 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은퇴재무설계 시작 시기의 경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응답자들의 분포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조사대상의 85%가 늦어도 30대에 은퇴재무설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들 중 51%만이 실제로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었고, 반대로 40대 이후에 은퇴재무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근로자의 44%는 벌써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은퇴재무설계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표 4>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따른 집단간 비교 - 은퇴기대와 태도

(n=227)

변 수	구 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t/ χ^2
		은퇴재무설계 수행 (n=114)	은퇴재무설계 미수행 (n=113)	
	예상 은퇴 연령(세)	55.38(8.0)	56.55(8.6)	1.07
	바람직한 정년(세)	59.16(7.0)	60.13(5.7)	1.15
바람직한 은퇴설계 시작 시기	30세 이전	36(48.6)	38(51.4)	.93
	30대	63(52.9)	56(47.1)	
	40대 이후	15(44.1)	19(55.9)	
	은퇴 후 예상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1~9점)	5.78(1.5)	5.40(1.7)	-1.80
은퇴 후 예상 경제 수준과 현재 경제 수준 차이	은퇴 후 > 현재	53(46.9)	60(53.1)	8.58*
	은퇴 후 = 현재	34(68.0)	16(32.0)	
	은퇴 후 < 현재	25(41.7)	35(58.3)	
	평균	.78(1.8)	.91(2.2)	
현 생활비 대비 은퇴 후 예상생활비 (%)	50% 이하	20(46.5)	23(53.5)	7.97*
	50%초과 75%이하	21(38.9)	33(61.1)	
	75초과 100%이하	54(60.7)	35(39.3)	
	100% 초과	17(43.6)	22(56.4)	
	평균	90.67(55.0)	87.79(49.1)	-41
은퇴 후 주요 예상수입원	개인 저축, 연금	55(44.7)	68(55.3)	10.62**
	직장 퇴직금, 연금	17(68.0)	8(32.0)	
	국민연금, 보조금	6(100.0)	0(0.0)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	36(49.3)	37(50.7)	
은퇴 후 주요 예상지출비목	식비·주거비	27(49.1)	28(50.9)	7.00*
	보건·의료비	61(57.5)	45(42.5)	
	문화·교양·오락비	23(36.5)	40(63.5)	
은퇴태도 ¹⁾	긍정적(38점 이상)	49(66.2)	25(33.8)	18.39***
	보 통(33~37점)	42(51.2)	40(48.8)	
	부정적(32점 이하)	21(30.4)	48(69.6)	
	평 균 ²⁾	36.79(5.6)	33.17(4.9)	

¹⁾ 은퇴태도는 [M±SD/2]를 기준으로 긍정적, 보통, 부정적 태도의 세 집단으로 분류함.

²⁾ 5점 환산평균 점수임.

은퇴 후 예상되는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자체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은퇴 후 경제수준이 현재의 경제수준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로자들은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은퇴 후 경제수준이 현재 보다 높거나 혹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집단이 오히려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역시 이와 비슷한 패턴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은퇴 후 생활비가 현재 생활비의 75~10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로자들은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비율이 높는데 반해, 75% 이하일 것이라고 예상한 근로자들, 그리고 오히려 100%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근로자들이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현재 경제적 능력과 은퇴 후 생활전망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은퇴계획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홍성희·곽인숙(2007)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퇴재무설계 과정에서 현재 생활비의 70~80%정도를 은퇴 후 예상생활비로 잡고, 은퇴 후 필요한 총 금액을 모으기 위해 구체적인 재무전략을 수립·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는 집단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무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은퇴 후 경제수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집단은 국민연금,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은퇴 후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지 않는 집단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가 낮고, 개인저축과 개인연금이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기대하는 바와 실제 행동 간에 일관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목을 살펴보면,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집단에서는 보건·의료비였고, 수행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문화·교양·오락비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건강 문제와 관련된 노후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보건·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은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은퇴재무설계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11점부터 55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갖는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척도에서,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집단은 평균 36.8점으로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33.2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은퇴태도를 긍정적, 보통, 부정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에서도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집단의 은퇴태도가 보다 긍정적이고,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의 은퇴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이 보여주었다. 이는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은퇴 후 경제적 계획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곽인숙·홍성희·이경희(200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4. 은퇴재무설계 수행집단의 재무설계 실태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114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금마련 방법 및 지출액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인 20~30대 근로자들이 은퇴 후 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외)을 모두 표기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조사대상자의 80% 가량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것은 조사대상의 65.8%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 그리고 60.5%가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종신/정기)이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같은 확정금리형 금융상품은 은퇴준비를 위한 자금마련 뿐만 아니라, 가계의 장기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추구하면서 자금을 운용한다는 차원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형 상품이나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은 은퇴 후에 정기적인 현금 창출을 보장해 주고, 종신/정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최근 다양한 상해에 관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고, 종합보장형 보험 상품들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 및 질병 보장과 겸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은퇴재무설계 수행집단의 재무설계 실태

(n=114)

변 수	구 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사용 중인 재무설계 방법 (중복응답)	정기예금/정기적금	91	(79.8)
	연금보험/연금저축	75	(65.8)
	생명보험 (종신/정기)	69	(60.5)
	간접투자상품 (펀드)	63	(55.3)
	건강/질병보험	52	(45.6)
	부동산	35	(30.7)
	주식/채권투자	31	(27.2)
효과적인 재무설계방법 ¹⁾ (1~3순위 응답)	부동산	44	(38.6)
	1순위 연금보험/연금저축	28	(24.6)
	퇴직금/퇴직연금	15	(13.2)
	전체 연금보험/연금저축	76	(66.7)
	부동산	70	(61.4)
	퇴직금/퇴직연금	42	(36.8)
은퇴재무설계를 위한 월평균 지출액	50만원 이하	47	(41.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49	(43.0)
	100만원 초과	18	(15.8)
	평균 (만원)	75.11	(41.93)
사용 중인 방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부족하다	40	(35.1)
	보 통	57	(50.0)
	충분하다	17	(14.9)
지출액에 대한 주관적 평가	부족하다	58	(50.9)
	보 통	35	(30.7)
	충분하다	21	(18.4)

¹⁾ 효과적인 재무설계 방법은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세 가지 방법만 제시함.

조사대상의 이용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효과적인 은퇴재무설계 방법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입하도록 한 결과,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방법은 부동산(38.7%)이었고, 그 뒤를 이리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24.6%), 퇴직금 및 퇴직연금(13.2%)로 나타났다. 한편 1~3순위에 관계없이 전체의 빈도를 집계한 결과, 효과적인 재무설계 방법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조사대상자의 66.7%가 선택한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61.4%), 퇴직금 및 퇴직연금(36.8%)이었다. 부동산의 경우, 현재 은퇴재무설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30.7%에 불과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부동산이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대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은퇴 후 목돈 마련을 위해서도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을 통틀어 은퇴재무설계를 위해 불입하고 있는 금액은 월

평균 75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약 41%는 50만 원 이하, 약 42%는 50~1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무설계 방법과 금액이 은퇴 준비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결과, 방법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고 답한 조사대상자가 35.1%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0%였다. 또한 과반수(50.9%)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은퇴재무설계를 위해 불입하는 금액이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재무설계 방법과 금액 각각에서 ‘매우 충분하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30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기대와 태도를 조사하고, 은퇴재무설계 수행여부에 따라 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이 예상하는 은퇴연령은 평균 56세로서, 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59.6세) 보다 4세 정도 낮았으며, 조사대상인 20~30대 근로자 중 85%가 40대가 되기 전에 은퇴설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현재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는 51% 정도였다. 또한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89% 정도로 조사되었고, 은퇴 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출비목은 보건·의료비(46.7%)였으며, 문화·교양·오락비(27.6%)가 뒤를 이었다. 중년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조사결과나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20~30대 근로자들이 은퇴설계 조기시작의 필요성 및 은퇴 후 여유 있는 생활 영위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절 반 정도의 근로자들만이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자녀양육이나 대출상환과 같은 재정적 제약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대 보다는 30대, 미혼 보다는 기혼인 근로자, 전문 관리직, 월평균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가를 보유한 근로자, 그리고 현재 본인이 처한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처럼 직업생활이나 가정생활이 안정이 되고, 소득과 자산수준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후에 은퇴재무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결과이다. 그러나 은퇴재무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 만큼 효과가 크고, 현재 처해있는 소득수준이나 경제상황이 여유롭지 않더라도 시작되어야 하는 장기적 재무목표임을 상기하고, 각 개인의 연령, 생애주기, 직업과 경제 상태에 적합한 은퇴재무설계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은퇴재무설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은퇴재무설계가 일부 금융기관의 상업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은퇴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비교만을 시도했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음 두 가지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즉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록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정적 준비 역시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는 반대로 은퇴 후 경제생활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그 방향성이 어떠했건 간에, 은퇴태도와 은퇴재무설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향후 은퇴재무설계는 지엽적인 재무전략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과정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은퇴재무설계 여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사회·경제적 특성과 은퇴 기대와 태도를 비교하였고, 은퇴재무설계를 하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재무설계 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은퇴재무설계 여부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며,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특히 비자발적 이유로 인해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어떤 요인이 제약이 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2007년 7월 3일자). 은퇴 준비 전혀 못해 60%
- 박인숙·홍성희·이경희(2007). 남성 직장인의 은퇴계획유형과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21-42
-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37-52.
-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8.
- 문숙재·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가족생활주기적 관점의 재정복지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조(2007). 직장인의 은퇴기대가 은퇴준비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145-158.
-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 (7), 89-102.
- 신하연(1997). 중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중범·전승훈(2003). 은퇴자가구의 소득과 소비. 제 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발표 자료집, 350-370.
-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숙·신상미(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03-113.
- 주소현 (2007). 가계의 은퇴준비 현황과 은퇴소득 충분성.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8-15.
- 최보아·지영숙(2004). 은퇴자의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47-61.

- 최성재(1989).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1), 47-65.
- 홍성희 · 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홍성희 · 곽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89-104.
- 홍성희 · 김순미 · 김혜연(2006).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95-115.
- Berfield R. & Morgan, J. (1978). Trends in planned early retirement. *Gerontology*, 11(1), 29-32.

20, 30대 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

유 현 정(충북대학교 주거환경·소비자학과 조교수)

출생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자녀 1인당 교육비가 2억 3천 2백 만원으로 추정되고(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7), 한달 평균 양육비가 87만원에 이르는 등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업안전성은 나날이 퇴보하여 사오정, 오륙도 등의 자조적인 유행어가 이미 굳어져 가고 있으며, 평균수명은 남자 74.4세, 여자 81.8세로(세계인구 현황보고서, 2007) 100세 인생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빠른 은퇴와 길어진 평균수명으로 소득이 없이 견뎌야 하는 시간은 길어진 반면, 자녀교육비 등으로의 지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은퇴 및 노후설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더욱이 은퇴재무설계가 갖는 특성상 조기에 설계에 돌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필요성을 매우 조직적인 논리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데이터를 통해 올바른 은퇴재무설계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높다.

특히 본 논문이 갖는 흥미로운 시사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을 20~30대로 한정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은퇴재무설계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퇴직연금 등으로 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있어 고용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대~3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주의 은퇴재무설계교육이나, 퇴직연금제도 보완, 금융기관의 연금관련 상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은퇴재무설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해 은퇴기대와 태도를 조사,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은퇴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은퇴태도가 긍정적이며,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지 못하는 집단일수록 부정적 태도가 높는데,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지 않는 집단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가 낮고 개인저축과 개인연금이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퇴재무설계에 대한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절실한 상황에서도 은퇴재무설계를 할 수 없는 방해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은퇴재무설계가 지엽적인 재무전략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은퇴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과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은퇴재무설계의 수행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에 있어 좀 더 정교한 척도를 사용했다면 분석결과가 보다 풍성하고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은퇴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이들의 은퇴재무설계에 대한 기대 및 태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집단의 프로파일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각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이나 금융상품 개발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하여 현 생활비 혹은 소득 대비 은퇴준비비용의 비율을 구해, 상대적으로 많은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구분, 비교분석한다면 은퇴재무설계를 못 하고 있는 집단과, 그 원인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상대적 가치를 측정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